

전략기획팀

한-EU FTA 주요내용 및 파급효과

- 섬유분야를 중심으로

2011년 5월 24일



 **한국니트산업연구원**
Korea Institute for Knit Industry

www.knitcenter.re.kr

섬유 의류분야

합의내용

- 상품 양허 : 섬유부문 단계적 관세 철폐
- 원산지 규정 : 역외산 재료 사용시 원산지를 인정하여 세번변경(합성수지) 및 Yarn-forward(섬유), Fabric forward(의류) 도입

영향전망

- 긍정적 : 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주력 품목의 수출확대 기대

쟁점사항

- 의류제품 원산지 기준 합의시 한국 및 EU측이 각각 봉제기준과 원사 기준을 주장하였으나, 양국은 이를 조정한 원단기준(Fabric forward)에 합의

❖ 한-EU FTA 주요 합의내용

섬유부문 주요 합의 내용 요약

상품양허			원산지 규정	
양허단계	우리측	EU측	품목	
즉시	직물제의류 (8~13%)	편직물(8%)	합성수지 (39류)	세번변경(4) - 일부는 역외부가가치 (50%)
5년	-	순모직물(8%)	섬유, 의류 (50~63류)	섬유 : Yarn-forward 의류 : Fabric-forward - 일부는 Yarn-forward
7년	순모직물 (13%)	-		

()안은 관세율, 세번변경 단위 또는 역외부가가치 비율
 자료 : 한국무역협회

섬유 및 의류업 기준 한국은 대 EU의 순 수출국

- 2008년 기준 한-EU간 섬유, 의류 거래액은 수출액이 11억 8,000만달러, 수입이 9억 6,500만 달러로 한국은 대 EU 2억달러 이상의 순수출국임
- 품목별 수출 구조를 보면 섬유원료 (1억 7,000만달러) 원사 (1억 8,600만달러) 직물류(5억 6,400만달러) 의류제품(2억 6,500만달러)으로 합섬직물류 수출 비중이 가장 큼
- 특히 의류는 편직제 의류수출 비중이 높은데다 원료와 원사수출도 상당규모에 이르고 있어 관세 폐지시 합섬직물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- 수입되는 원료나 원사는 국내 생산이 없는 비스코스용 원료, 특수사, 모직물, 캐시미어 등으로 수입이 불가피한 품목이 대부분임

가격 경쟁력 제고를 통한 주력 품목의 수출확대 기대

- 평균 7.56% EU섬유관세가 철폐될 경우 우리나라 섬유산업이 EU시장에서 저가의 중국, 대만제품과 경쟁한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 강화로 주력 품목의 수출 확대가 예상됨
- EU내 선진국 뿐 아니라 동유럽 시장으로의 접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섬유수출 시장의 다변화도 기대할 수 있음
- 개성공단의 경우 한미 FTA방식을 채택하여, 발표 1년 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, 북한산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될 경우 개성공단에 진출한 국내 의류업체의 수혜가 예상

❖ 한-EU FTA 파급효과 분석

✓ 한-EU FTA의 전북 제조업 수출입 영향

산업	수출증가액		수입증가액		무역수지	
	1-5년 연평균	15년 연평균	1-5년 연평균	15년 연평균	1-5년 연평균	15년 연평균
섬유화학	10.3	10.7	1.85	2.07	3.6	3.2
정밀화학	0.3	0.3	1.14	1.32	-0.9	-1.1
섬유	14.9	14.9	2.93	3.01	15.8	15.0
철강	0.2	0.2	0.14	0.14	-10.2	-10.2
기계	0.7	0.7	5.89	6.75	-35.8	-42.1
전기전자	2.2	2.5	4.79	5.27	-0.1	-0.1
자동차	46.9	61.6	3.05	3.43	61.3	82.8

출처 :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외 9개 기관,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(2010) 내용을 기초로 전북부문 계산

- ✓ 섬유 분야는 EU가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FTA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(관세유예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아도 되는 제1품목으로 대부분 선정됨)
- ✓ 섬유 분야는 전라북도가 EU의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임